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② 사찰 참배하며...무량 공덕 짓는 길

공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10.02 16:46 | 호수 3686 | 댓글 0



충도감 호산스님이 순례단을 대표해 사성암 약사전에 불전했다.



불교신문TV

더보기 >

젊은 디자이너가 아침...



젊은 디자이너가 아침부터 절을 찾는 이유?...

포토뉴스



조계사 국화향이 나눔전 개막



색선별 최신기사

"SNS어
뉴스



불교신문TV

젊은

젊은 디자이너가

많이 본 기사

- 1 [원파스님의 하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세종시 영평사
- 6 [삼보사찰 천리
- 7 [삼보사찰 천리
- 8 [삼보사찰 천리
- 9 조계사 국화향
- 10 [삼보사찰 천리



최신뉴스

- 젊은 디자이너가 아
- [말씀] 부처님께
- 선사는 '하얀 은 주'
- [오심스님의 삼보사
- [오심스님의 삼보사
- [오심스님의 삼보사
- [오심스님의 삼보사
- [오심스님의 삼보사
- [오심스님의 삼보사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0월2일 걷기 일정을 마친 후 사성암을 찾았다. 사성암은 4명의 고승(원효 대사, 의상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이 수행한 암자로 구례의 너른 들판과 섬진강이 한눈에 들어 다 보이는 기암 절벽 위에 위치해 있다. 장시간 걷기에 아직 익숙지 않아 몸이 천근만근임에도 순례단은 사성암에 올라 약사전에 참배하고 불전했다.

순례단을 이끄는 상월선원 결사 회주 자승스님도 총도감 호산스님 등과 사성암을 찾았다. 총도감 호산스님이 순례단을 대표해 약사전에 불전했으며 뒤이어 스님과 재가자들도 부처님 전에 예경하고 공양물을 올렸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정 중 순례단이 지나는 사찰만 10여 곳. 불법승을 대표하는 삼보사찰 외에도 영호남 사찰 곳곳마다 부처님께 예경하고 불전하며 무량 공덕을 쌓자는 취지에 맞게 수승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청도 적천사 주지 탄학스님은 걷기 일정 동안 지나는 사찰 마다 신도들을 위한 축원 및 영상 포교를 다짐했다고 했다. 6시간의 걷기 후 가파른 절벽 위 사성암 약사전에서 신도들을 위한 축원을 올린 탄학스님은 “순례에 동참하기 전에 18일 동안의 일정동안 61명의 신도들을 위한 축원 기도를 올려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네이버 밴드 등 신도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가는 곳마다 기도 원력을 전해줄 것”이라고 했다.

김호준 스노보드 선수는 사찰을 참배하며 상월선원 결사의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어렵듯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불전을 위해 지갑에 두둑이 공양금도 준비해 왔다는 김호준 선수는 “불자로서 스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늘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 아니고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제가 짓는 이 공덕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참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전을 하며 나도 모르게 불심이 생기는 것 같다”며 “자기 성찰의 목적으로 참여한 천리순례지만 매일 고된 걷기 일정을 소화하고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예경하며 나도 모르게 불심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덧붙혔다.

한편 25km 걷기 일정 및 사성암 참배를 마친 순례단은 이날 오후 개최되는 사성암 음악제 ‘길 위에서 길을 찾다’를 관람했다.



상월선원 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사성암을 찾았다. 약사전을 올라 보고 있는 자승스님.

종단 “합법적 문화재 관람료 매도한 정청래 약...
전국 조계종부산聯 제1회 어린이 삼귀의계·오...
사회&국제 “故 변희수 하사 승소 환영...차별...
인물 [인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대중공사 본격화되는 국보급 불상(佛像)의 환...
수행&신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달...
문화 은은한 차향에 담긴 '조계사 예불소리'의 ...
기획&연재 [보일스님이 들려주는 인공지능 아...
출판&문학 조계종 초대종정 효봉스님의 '상당...
학술&문화재 “이웃에게 큰마음 내는 게 수륙...
복지&상담 노인의날...“1년 365일 내내 어르...

대한불교조계종 전문서

www.

02)2

법공양 (기획PR)





사성암을 참배하는 순례 대표단.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사성암에 걸려 있다.

구례=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길, 자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① 한국불교 새 운동...
- ↳ 불교중흥 발원 특별 선사화전 열린다
- ↳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
- ↳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의 꽃은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실상사 참...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고 기다라...
- ↳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해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덜과 평생 한번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② 삼보의 의미를 다시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특집] 한국불교 중흥 위한 첫 ...
- ↳ [영상]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한국불교 중흥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자승...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매선사 깨달음 얻...
- ↳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자...응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찾은 총무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어도 꽃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수와 ...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